

# 방광염

그레이스병원 원장 황 경 진

성인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많은 질병 중 하나가 방광염이다. 방광염은 일단 발생하면 그 증상이 고통스럽고, 신경이 몹시 쓰이게 되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요관염, 신장염으로까지 병이 커지게 되므로 조기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방광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다.

## ≫원 인

방광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서 방광 안으로 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그균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간 것일까?

방광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균은 신기하게도 대장균(E.coli)으로서 항문 주위와 직장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균이다. 대변 속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대장균이 방광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경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은 항문에 가장 가까운 질 속이나 요도 입구에 균이 묻어 들어가 모여 있다가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항문과 질 주위를 청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이 방광염이 있을 때 질염 치료를 함께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균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염증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방광염은 주로 몹시 피곤하거나 성교 직후, 혹은 질 속

에 피임제제인 살정제 젤리나 피임기구를 삽입하여 균이 들어갈 기회가 많았을 때, 오줌을 너무 오래 참았을 때, 또 최근 방광염이나 요도염을 충분히 치료하지 않아 아직도 균이 남아 있는 상태 등이 원인이 된다.



방광염 자체는 대수롭지 않은 질환이지만 자주 재발한 다거나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 급성 신우염이나 요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엔 신장기능 저하로 신부전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 » 종류

가장 많은 급성 방광염을 비롯하여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방광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의 결함에 의해 방광 점막하에 병변을 일으키는 간질성(interstitial cystitis) 방광염, 혹은 신혼여행 시 처음 성교 후 잘 나타난다는 허니문 방광염, 또 자주 재발하는 재발성 방광염 등이 있다. 어떤 종류의 방광염이든 기본적인 증상과 치료 요법은 비슷하다.

## » 증상

일단 방광염이 생기면 환자는 갑자기 소변 시 통증과 빈뇨, 급뇨 증상이 있고 또한 소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엔 혈뇨가 나타난다. 혈뇨란 소변에서 혈액이 나오는 상태인데, 아주 선명하게 빨갛거나 출혈이 오래된 경우엔 콜라 같은 검은색 내지는 갈색을 띠 수도 있다. 그러나 혈뇨가 너무 심하거나 심한 통증이 동반 시에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특수 촬영을 하여 요석(요관 내 돌맹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 » 무증상 세균뇨란?

전혀 방광염의 증상 없이 소변에 균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임신한 경우나 혹은 임신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급성 신우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임신 중에는 조산으로 인한 저체중아, 임신 중독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에도 방광이 약한 분들은 소변배양 검사를 하는 것

이 비용은 들더라도 도움이 된다.

## » 진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소변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 세포가 많이 나오거나 심한 경우 혈뇨가 동반된다. 치료를 해도 병이 호전되지 않고 자주 재발하는 경우엔 신장기능 검사와 배양 검사까지 하고 더욱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엔 방광경 검사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 » 예방

평소 방광염에 잘 걸리는 사람은 몸이 조금만 무리를 했다거나, 피곤했을 때 가장 먼저 방광염이 발생하므로 얼른 휴식을 취하면서 미리 따뜻한 물에 좌욕이나 온수욕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수면을 취하여 일단 기운을 회복하도록 한다.

## » 치료

적절한 항생제 요법과 휴식과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치료도 잘 된다. 항생제 요법은 약 5~7일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1회 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을 많이 먹거나 수액 요법으로 수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확실히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데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담그는 좌욕을 하면, 방광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재발이 심한 경우엔 배양 검사나 방광경 검사를 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좋다. 며칠간 약물치료를 하여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면 무조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변배양 검사를 하여 확실하게 전혀 균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